

2024 06 KICE analysis

국어 - 문학

UR dokzon



[18-21] 고전 소설 - 「상사동기」

우선 <보기>부터 읽읍시다.

<보 기>

「상사동기」는 남녀가 결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애정을 추구하는 서사라는 점에서, 애정 전기 소설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전대 소설보다 현실성이 강화되었다. 감정에 충실하여 애정을 우선시하는 주인공의 성격, 서사 진행에 적극 개입하는 보조적 인물의 등장, 환상성을 벗어나 일상에 밀착된 배경의 설정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분적 한계를 지닌 여성과의 결연 과정에서 애정 성취를 가로막는 사회적 관습으로 인한 갈등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소설사적 의의가 있다.

- 결연의 어려움
- 현실적인 문제
- 조력자
- 신분적 한계를 지닌 여자 주인공
- 사회적 관습으로 인한 갈등

문학이 출제되었을 때 답이 나오는 근거는 ‘문학사적 의의’입니다. 해당 작품이 문학사적으로 어떤 의의가 있는지가 출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문학사적 의의의 종류에는 특정 갈래의 대표작, 당대 시대적 배경의 반영, 특별한 표현법이나 비유가 있으며 이런 문학사적 의의를 <보기>로부터 찾아내고, 작품 독해 시에 사용해야 효율적이면서 정확한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오른쪽에 문학사적 의의와 관련 있는 키워드들을 제가 뽑아놨습니다. 실제로 문학사적 의의라는 용어를 작년부터 계속 강조해왔는데 올해 6월 모평에 ‘소설사적 의의’라고 명시된 것을 보니 더욱 확신을 갖게 되는 부분입니다. 작품 독해해봅시다.

우선 고전소설의 목적은 ‘왜 재미있는지’를 찾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이 작품이 다른 작품과 차별화되도록 만들었는지를 말이죠. 우선 앞부분에서 어떤 맥락인지를 찾아야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을 구분하는 겁니다. 간단히 주인공 편과 반대편을 찾으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문항의 경우 <보기>에서 조력자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으므로 반드시 찾아야 할 겁니다.

십여 일이 지날 무렵 노비 막동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낭군께선 늘 언행이 호방하시고 재주가 무리 중에 탁월해 거침없으시더니, 요즘에는 울적해 하시니 말 못할 근심이 있는 듯하옵니다. 사모하는 이라도 있으신지요?”
 김생이 슬퍼하며 느낀 바를 사실대로 말하니 막동이 한참 생각하고 말했다.
 “소인이 낭군을 위해 마루의 ㉠ 계책을 올릴 테니, 낭군께선 애태울 일이 없으십니다.”
 “그게 무엇이더냐?”

- 막동이가 누구지 노비인데 혹시 신분이 낮은 여주인가.
- 사모하는 이가 있는 남자? 아마 남주인가
- 김생이 뭔가 남주같네.
- 심지어 여주 좋아한다고 털어놓나보다.
- 도와준다고? 막동이는 여주는 아니고 조력자인가보다. 심지어 ㉠으로 밑줄까지 쳐져 있으니 막동이는 <보기>에서 요구하는 조력자일 듯

문학에서 밑줄이 쳐져 있으면, 높은 확률로 주제가 함축된 표현이거나 아니면 <보기>에서 언급한 주제와 매우 관련 있는 서사적 장치일 겁니다. 따라서 밑줄이 왜 쳐져 있는지 이유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는 아마 조력자가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를 밑줄로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네요.

“낭군께선 급히 주효(酒肴)를 성대히 마련하시고 바로 미인이 머문 집으로 가서서 손님을 전별(餞別)하려는 듯 하십시오. 방 하나를 빌려 잔치를 벌이시고 이놈을 불러 손님을 모셔 오라 하시면, 제가 명을 받들어 나갔다가 한 식경 후에 돌아와 ‘손님이 오십니다.’라 하지요. 낭군께서 다시 명하시면 제가 또 명을 받고 날이 저물 때쯤 돌아와, ‘손님께서 오늘은 송별객이 많아 심히 취해 갈 수 없으니 내일 꼭 가겠노라 하셨습니다.’라 하지요. 이때 낭군께선 주인을 불러 앉으라 하시고 그 주효를 먹게 하고, 기색을 드러내지 말고 물러나십시오. 다음 날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 날도 그렇게 하시면, 처음엔 고맙게 여길 것이요, 두 번째는 은혜에 감격할 것이며, 세 번째는 필히 의문을 품을 것입니다. 은혜를 느끼면 보답을 생각할 것이고, 은혜에 감격하면 죽음으로써 보답하고자 생각할 것이며, 의문이 생기면 하시고 싶은 바를 물어볼 것입니다. 이때 흥금을 털고 말하신다면 일은 거의 다 된 것이지요.”

생은 진정 그럴듯하다 여기고 기뻐하며 말했다.
 “내 일이 잘 되겠구나!”

생은 그 계책에 따라 즉시 주효를 갖추어서 곧바로 그 집이 전별 자리를 마련하였다.

조력자의 도움이 내용이 나오고 있다

대충 여주가 신분이 낮아 그 뒷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내용인가보네.

잘 보이고 바로 여주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려나 보다. ㅋㅋ

조력자가 도와줬으니 당연히 신나겠네. 이제 작전하려고 행동에 옮기는구나.

(중략)

중략은 매우 중요한 표지입니다. 소설을 풀 때는 고전과 현대 상관없이 장면을 나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장면이 바뀌는 시공간적 전환은 강력한 출제 point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꿈, 회상 등이 나오면 장면이 바뀌므로 반드시 꿈과 회상의 시작과 끝을 표시해 놓아야 합니다. 또한 앞부분 즐거리나, 중간 즐거리가 나오면 이는 작가가 쓴 게 아니라 평가원이 직접 써준 것이니 출제자의 의도가 매우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써져 있는 즐거리로부터 글의 전반적인 내용과 사람 관계, <보기>와의 연관성을 찾아야 합니다.

중략은 매우 중요한 표지입니다. 소설을 풀 때는 고전과 현대 상관없이 장면을 나누는 게 매우

생이 사모하는 이가 필시 이곳에 없는 줄 알고 낮빛을 바꾸며 말했다.

“이 몸이 할멈에게 후의(厚意)를 입었으니 어찌 사실대로 말하지 않겠나? 과연 모월 모일 모처에서 오다가 길에서 마침 한 남자를 보았다네. 나이는 대략 십오륙 세에 푸른 적삼에 붉은 치마를 입었고, 백릉머선에 자색 신을 신었지. 진주 비녀를 꽂고 새하얀 옥 반지를 끼고, 홍화문 앞길을 지나가고 있었다네. 내 마음이 화사해지고 춘정을 이기지 못해 뒤따랐는데, 마지막에 이른 곳이 곧 할멈의 집이었네. 그날 이후로 마음이 혼미하여 만사가 흐릿하며, 오로지 그 남자만 생각했다네. 맑은 눈동자와 하얀 이가 자나 깨나 잊히지 않아 상심하며 애태우길 하루 이틀이 아니었네. 할멈이 나를 보고 낮빛이 파리하다 했는데 왜 그랬겠나? 그래서 손님을 전별한 다며 할멈을 번거롭게 한 것이네.”

노파가 이 말을 듣고 몹시 애처로워했으나 생이 마음에 둔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 한동안 깊이 생각하다가 문득 깨닫고서 말했다.

작전이 실패했나보네요. 여주가 아예 없어요. 할멈한테 후의를 입었고, 털어놓는 걸로 보아 (막동이가 말했던 흥금) 할멈이 바로 이 작전으로 잘 보이려고 했던 대상이었습니다! 할멈한테 털어놓고 있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제발 도와달래요.

여주 만나게 해줘~

할멈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정말로 여주가 어딴지를 모르나보네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언가를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런 애가 있습죠. 바로 죽은 제 언니의 딸이에요. 이름은 영영이고 자(字)는 난향이죠.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러한가?”

“이 애는 회산군 댁 시비예요. 궁에서 나고 자라 문 앞길도 밟지 못한 지 오래랍니다. 자색(姿色)이 고운 것은 낭군께서 이미 보셨으니 굳이 말할 것 없지만 고운 마음이며 얌전한 몸가짐은 양반집 규수와 다를 게 없지요. 게다가 음률과 문장을 알아 나리께서 어여뻐 여기시고 장차 소실(小室)로 맞으려 하셨지만, 부인의 시샘이 하동의 사자후보다 심하여 그렇게 못 하고 있을 뿐이옵니다. 지난번 그 애가 올 수 있었던 것은 한식 때를 맞아 그 애가 어미의 제사를 이곳에서 지내려고 부인에게 말미를 얻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때마침 나리께서 외출하신 터에 올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던들 낭군께서 어찌 얼굴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아이고! 낭군께서 다시 만나시기는 참으로 어렵습죠. 참으로 어려워요!”

생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했다.

“아, 끝난 것이로구나! 나는 필시 죽겠구나!”

노파가 안타까워 멍하니 서 있다가 다시 말했다.

“딱 한 가지 ㉠ 방법이 있습죠. 단오가 꼭 한 달 남았습니다. 그때 이 몸이 죽은 언니를 위해 제사상을 차리고 부인에게 영영에게 반나절의 말미를 주도록 청한다면, 만에 하나 낭군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낭군께서 돌아가시어 때를 기다렸다가 오시지요.”

생이 기뻐하며 말했다.

“할멈 말대로 된다면야 인간의 5월 5일이 천상의 7월 7일이 되겠소!”

생과 노파는 각각 만복을 기원하며 헤어졌다.

- 작자 미상, 「상사동기」 -

혁, 알고보니 할멈의 조카였어요.

근데 문제가 있다네요.

-군이라면 왕과 첩의 자식입니다. 왕과 처의 자식은 -대군이고요. 어쨌든 궁 안에 있다는 거니 너무 어렵겠네요...

신분은 낮을지언정 품격과 미를 모두 갖추어서 회산군이 첩 삼으려 했으나 처의 견제로 인해 못 했다고 하네요. 빼돌리기 엄청 어렵겠는데요...

망했다고 슬퍼하고 있어요.

할멈이 불쌍해 하네요.

방법이 있다네요. 할멈도 조력자였고, 할멈의 도움은 ㄴ 밑줄이네요! ㄱ과 ㄴ 모두 조력자의 도움 그 자체라는 걸 알아냈어요. 할멈이 직접 청을 하여 시간을 벌여줍니다.

또 조력자 덕에 신난 우리의 김생...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나

자 독해 장면에 따라서 하니 간단하죠? 문제 보겠습니다.
 여차피 주제에 따라 문제 답이 나올 겁니다. - 조력자 덕에 신분 낮은 여주 만날 생각에 신난 김생

18. 윗글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 표지를 활용하여 사건의 추이를 드러낸다.
 - ② 앞날의 일을 가정하여 인물 간 갈등의 심화를 암시한다.
 - ③ 인물에 대한 논평을 활용하여 갈등의 해소 방안을 제시한다.
 - ④ 인물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성격의 변화를 보여준다.
 - ⑤ 인물의 성격을 고사에 빗대어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한다.

성격의 변화 : 인물의 성격이 바뀌는 작품은 극히 드뭅니다. 많아 봐야 1번이고 이마저도 거의 없습니다.
 고사 : 고전 소설이나 시가에서 고사로 보이는 중국 이름이나 산이 나오면 미리 체크하는 게 문풀에 좋아요.
 ① : 사건의 추이가 안 보이는 소설은 없습니다. 시간 표지는 첫 줄부터 바로 나오네요. (십여 일) (O)

19.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막동은 생의 근심이 사모하는 마음 때문일 것이라 추측했다.
- ② 생이 노파의 집에서 손님을 전별하는 일을 벌인 데 대해 노파는 번거로움을 호소했다.
- ③ 노파는 생이 찾는 자색이 고운 여인이 죽은 언니의 딸인 것을 깨달았다.
- ④ 노파는 생의 사연을 애처롭게 여기고 자신이 영영에 대해 아는 바를 알려주었다.
- ⑤ 생은 천상의 일에 빚대어 영영을 만나는 일의 기쁨을 표현하였다.

1번 - 막동이의 조력 계기를 물어봄

2번 - 노파가 조력자인지 물어봄

3번 - 노파가 조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봄

4번 - 노파가 조력했는지 물어봄

5번 - 생이 조력자의 도움을 좋아했는지 물어봄

이렇게 선지들을 보면 커튼을 다 걷어내고 그래서 뭘 물어봤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이게 시험에서도 바로 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기출 분석을 이런 식으로 선지에 대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주제 : 조력자 덕에 신분 낮은 여주 만날 생각에 신난 김생 → 막동이와 노파가 조력자였죠.

2번은 노파가 조력자가 아닌 것처럼 말했으니 틀립니다. 노파의 말을 일일이 보며 '이 부분은 번거로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등의 판단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게 있었으면 애초에 우리가 앞에서 노파는 조력자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 등으로 메모를 했겠죠. 바로 답이 보여야 하는 문항이었습니다.

20.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조력자의 조력 방법이 밑줄이었죠.

- ① ㉠과 ㉡은 모두 생에게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 ② ㉠과 ㉡은 모두 생의 의도를 숨기기 위해 상황의 급박함을 부각하는 방식을 취한다.
- ③ ㉠은 막동의 제안을 생이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은 생의 제안을 노파가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 ④ ㉠이 이루어지면 생은 노파에게 속내를 드러낼 기회를 얻게 되고, ㉡이 이루어지면 생이 영영과 만날 기회를 얻게 된다.
- ⑤ ㉠에서 생은 노파에게 접근하기 위해 가상의 존재를 내세우고, ㉡에서 생은 영영과의 만남을 위해 생은 영영과의 만남을 위해 권력자의 위세를 내세운다.

1번 - 주인공과 조력자의 친밀도를 물어봄. 생은 마냥 신났었죠. 의구심도 없이. 어린 무능력한...

실제로 고전 소설에서 조력자가 도와준다 하면 거의 모두 신나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신중한 면모가 나오면 그 작품이 특이하다고 생각하고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2번 - 주인공과 조력자의 친밀도를 물어봄. 생이 다 털어놨어서 조력자들이 도와주기로 마음 먹었었죠.

3번 - 조력자의 방법의 차를 물어봄. 막동이는 방법을 알려주지만 했고, 노파는 방법도 알려주고 자기도 직접 그 방법에 참여했었습니다. 생의 제안이러뇨. 애는 날로 먹기만 합니다.

4번 - 새로운 조력자를 만나게 된 계기를 물어봄. 영영이 없지만, 털어놓은 덕에 노파가 도와주죠. (O)

5번 - 손님 있는 척 해서 할멈과 친해졌었죠. 그러므로 앞의 설명은 맞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영영과의 만남을 위해 권력자로부터 몰래 영영을 만날 방법을 찾습니다. 권위를 내세우는 것과 정반대죠.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상사동기」는 남녀가 결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애정을 추구하는 서사라는 점에서, 애정 전기 소설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전대 소설보다 현실성이 강화되었다. 감정에 충실하여 애정을 우선시하는 주인공의 성격, 서사 진행에 적극 개입하는 보조적 인물의 등장, 환상성을 벗어나 일상에 밀착된 배경의 설정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분적 한계를 지닌 여성과의 결연 과정에서 애정 성취를 가로막는 사회적 관습으로 인한 갈등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소설사적 의의가 있다.

결연의 어려움
현실적인 문제
조력자
신분적 한계를 지닌 여자 주인공
사회적 관습으로 인한 갈등

- ① 생이 첫눈에 반한 영영과의 애정 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점에서, 감정에 충실한 인물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막동과 노파가 생의 애정 성취를 돕기 위해 나서는 점에서, 사건에 적극 개입하는 보조적 인물의 등장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생이 길을 가다 우연히 영영을 마주치고 노파의 집까지 뒤따르는 것에서, 사건 전개가 일상적 공간 속에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영영이 회산군 댁 시비인 까닭에 두 인물의 만남이 어려운 점에서, 여성 주인공의 신분적 한계로 인해 애정 성취에 곤란을 겪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⑤ 회산군 부인의 허락을 구하려는 노파에게 생이 동조하는 것에서, 사회적 관습 안에서 현실적인 애정 방법을 찾는 인물의 내적 갈등을 확인할 수 있군.

1번 - 주인공의 목적이 사랑인지 물어봄

2번 - 막동과 노파가 조력자인지 물어봄

3번 - 소설의 배경을 물어봄 (주제랑 딱히 상관없으니 답이 되기 힘들다는 판단)

4번 - 주인공이 처한 문제 상황을 물어봄 (조력이 필요한 상황)

5번 - 조력자의 도움을 주인공이 좋아하는지 물어봄 → 내적 갈등이 있을 리가요.. 마냥 신났잖아요. (X)

내적 갈등 : 인물 간의 갈등이 아닌 말 그대로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다. 자신의 자아에 대해 성찰, 타인의 행동에 대한 의미 해석의 고민(애가 나 싫어해서 이랬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작품에서 내적 갈등은 조력자가 도와준다고 하기 전에 혼자서 머리만 싸매는 무능력한 김생의 모습에서 볼 수 있다.

전형적인 고전 소설 문항이었으며 자주 나오던 소재인 [조력자]가 Main이었던 지문이었습니다.

영웅 소설의 단계는 - 어렸을 때의 고난이나 시련 - 성장 - 위험에 직면 - 조력자의 도움 -극복 -일상로의 귀환 -입니다. 따라서, 영웅 소설이 많은 고전 소설에서의 [조력자] 개념은 꼭 학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답 판단 근거가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력자가 다 했고 생은 그냥 신나하기만 했다는 것으로 몇 개의 선지가 판단됐는지 기억하시죠? 그리고 모든 정답은 조력자의 도움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지, 어떤 방식인지, 이를 주인공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로 나왔었다는 것까지 기억해주세요.

[22-26] - 고전 시가 - 「한거십팔곡」, 「기취서행」

(가)

<보기>

권호문의 「한거십팔곡」은 지향하는 삶을 실천하는 태도의 변화 과정을 형상화한 연시조로, <제1수>부터 <제19수>까지의 내용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지향하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를 실천하는지를 모두 찾아야겠죠.

(가)와 (나) 통합

<보기>

(가)와 (나)에는 작가가 유학자로서의 신념을 바탕으로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나타난다. (가)에는 출사와 은거 사이에서의 고민과 그 해소 과정이, (나)에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곤란을 겪은 상황에 대한 성찰이 나타난다. 한편 (나)는 세속적 가치를 떨치지 못해 과오를 저질렀던 상황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가)와 차이를 보인다.

유학자로서의 신념은 두 작품의 공통점이나,
그러나 둘이 선택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는
찾아야 합니다.

(가) : 출사(정치인, 대부) / 은거(선비) 고민과 고민이 해소되는 과정까지 찾아야겠네요.

(나) :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세속적인 면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하니, 어떤 과오를 저질렀는지 찾아야 해요.

기출에서의 고전 시가 중 사대부들이 쓴 고전 시가는 매우 빈출 소재입니다.

유학자들의 목적은 간단히 말해서 '수신제가치국평천하'입니다.

수신 : 몸을 삼가 닦고,

제가 : 집안을 잘 가꾸며,

치국 : 나라를 통치하고,

평 천하 : 천하를 태평하게 한다.

개인의 삶에서 유학을 실천함에서 시작해 중국에는 세상에 유학의 이념이 잘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이때 앞의 수신 제가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士(사), 세상에 나아가는 사람을 大父(대부, 정치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두 방법으로 각각 실천해야 할 유학의 이념 중 최우선 가치는 道(도)이며, 자연에는 이미 구현된 원리를 말합니다. 자연처럼 인간 세상에 평화와 안정을 불러오려고 노력하는 게 사대부들의 목표네요.

따라서 자연과 하나되는 물아일체의 경지는 도를 완벽히 실천해낸 최고의 경지인 것이죠. 19 수능 <보기>

<보기>

조선 시대에 과거 급제는 개인이 임신양명하는 길이자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을 보필할 수 있는 주된 통로였다. 권호문 역시 이를 위해 과거에 여러 번 응시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모친 사후, "뜻을 얻으면 그 은혜를 백성들에게 베풀고, 뜻을 얻지 못하면 자신을 수양한다."라는 유교적 출처관(出處觀)에 따라 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그는 42세 이후 줄곧 조정에서 천거되어 정치 현실로 나올 것을 권유받았으나 매번 이를 거절했다. 「한거십팔곡」에는 권호문의 이러한 삶과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처(處)는 '머무른다'는 뜻의 한자어로, 자연에 은거하여 자신의 몸을 수신하고 홀로 '도'를 구현하는 '성인'이 되고자 하는 유학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출(出)은 '나간다'는 뜻의 한자어로, 과거를 통해 조정으로 나아가 임금을 보필하는 유학자들을 말하죠. 원래의 이상적인 유학자는 '處'를 통해 자신이 얻은 '道'를 세상에 구현하고자 '出'하는 것이나 과거에 실패한다면, 아니면 정치에 뜻이 없어 '士'의 정체성만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士(사) : 개인의 몸과 마음을 道(도)에 맞게 갈고 닦음 feat. 유유자적, 물아일체, 안분지족, 안빈낙도
 大父(대부) : 정치인으로서 나라 전체에 道(도)를 실현하려 함 feat. 태평성대를 목표

(가)	㉠ 평생에 원하느니 다만 충효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나 다르리야 마음에 하고자 하여 ㉡ 십재 황황(十載惶惶)*하노라	<제1수>	충효는 사든 대부든 지켜야 하는 원칙 십년 동안 사를 할지 대부를 할지 못 정함
	비록 못 이뤄도 임천(林泉)이 좋으니라 무심 어조(魚鳥)는 절로 한가하였나니 조만간 세상일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	[A]	사로서의 정체성
	출(出)하면 처(處)하면 조월경운* 명철 군자는 이것을 즐기나니 하물며 부귀 위기라 가난하게 살리로다	<제3수>	사와 대부를 고민 군자는 모두 할 수 있음 한편 자기는...? 가난하게 살 것 ~ 안빈낙도 → 사
	날이 저물거늘 도무지 할 일 없어 소나무 문을 닫고 달 아래 누웠으니 세상에 티끌 마음이 일호말(一毫末)도 없다	[B]	세상에 미련이 없음 → 대부와 반대 ∴ 사
	성현의 가신 길이 ㉢ 만고(萬古)에 한가지라 은(隱)커나 현(見)커나 도(道)가 어찌 다르리 한가지 길이오 다르지 않으니 아무 헛들 어찌리	[C]	사든 대부든 옳은 길 중 하나라 말함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궁극적 목표인 道(도)를 이루겠다고 말함
	강가에 누워서 강물 보는 뜻은 세월이 빠르니 ㉣ 백세(百歲)인들 길겠느뇨 ㉤ 십 년 전 진세(塵世) 일념이 얼음 녹듯 한다	<제8수>	완전히 해탈함
	<제19수> - 권호문, 「한거십팔곡」 -	고전 소설 푸는 법이 이해가 안 된다면 이전 글을 참고해주시거나 문의 주세요.	

사와 대부라는 두 정체성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사를 선택하고 미련없음을 보여주는 시로 정리되네요.
 밑줄들을 먼저 정리해볼까요?

- ㉠ : 평생 - 사대부로서의 삶
- ㉡ : 십재 - 두 정체성을 고민하던 시간
- ㉢ : 만고 - 특정 시간대가 아닌 보편적인 삶
- ㉣ : 백세 - 오랜 삶
- ㉤ : 십 년 전 - ㉠을 지칭함

(나)

몇 칸의 집을 수선하려 함에, 아내가 취서사로 들어가 겨름*을 구해 오길 권하였다. 유택은 안 된다고 하고, 유평은 해 보자고 하는데, 나도 스스로 생각해 보니, 절은 기와를 [D] 쓰기에 겨름은 그다지 아끼는 것이 아니고, 다만 민간의 요구와 요청에 응하는 것이기에, 이를 요구하더라도 의리를 심히 해치지 않을 듯하였다. 그래서 다시 의견을 널리 구해 보지 않았다.

마침 처숙부 상사공이 약을 지으려고 취서사로 가게 되었는데, 내가 가고자 함을 알고 따르게 하였다. 대개 공 또한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윽고 취서사에 도착하니 근방 마을에서 모여든 자가 거의 승려들 수와 맞먹었는데, 모두 겨름 때문에 온 자들이었다. 좌우에서 낚아채 가며 많이 가지려 다두고, **시골벽적으로 뒤섞여 밟아 대어** 곧 시장판을 만들었으며, 가져감이 많고 적은은 그 힘의 강약에 따랐으나 승려들은 참견하는 바가 없었다. 그런데 늦게 도착하여 종도 없는 자는 승려들을 나무라며, 심지어 가혹한 일을 하기까지 했지만 또한 얻을 수 없었다.

(중략)

나는 마음속으로 민망히 생각하였지만, 이미 그 속에 가 있었기에 [의리]를 [이욕]에 빼앗겨서 초연히 버리고 돌아오지 못하였다. 상사공의 힘으로 수십 묶음을 얻어 햇빛에 말려 보관할 수 있었으니, 다 상사공의 도움 덕분이었다.

스스로 헛걸음하지 않은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여겼는데, [E] 집으로 돌아오자 멍하기가 마치 술에서 막 깨어난 사람이 잔뜩 취했을 때를 되짚어 생각하는 듯하였다.

내 아내는 비록 원대한 식견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항상 곤궁함 때문에 치욕을 입을까 걱정하였으니, 가령 이와 같을 줄 알았다면 반드시 나의 행차를 권하지 않았을 것이고, 유평도 또한 마땅히 찬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상사공은 청렴하고 정직하여 주고받음이 구차하지 않다. 거처하는 집 아래채가 세 칸의 초가집이니, 마땅히 겨름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막 삼계 서원 원장이 되었는데, 취서사가 바로 삼계 서원에 귀속된 절이었다. 그때 서원의 노비가 개인적으로 취서사에 가서 머물고 있는 자가 서너 명 있었으니, 진실로 가지려고 하면 힘이 없을 걱정이 없었다. 그런데 담담하게 한마디도 간섭함이 없었으니, 그 마음속으로 반드시 나를 비난하였을 것이다. 그런데도 애써 나를 위하여 저와 같이 마음과 힘을 써 주신 것은 다만 나의 곤궁함을 불쌍히 여겨서일 뿐이리라.

화자는 가난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겨름이 필요한데, 아내와 유평은 절에서 얻어오고, 유택은 안 된다고 하네요.

화자 생각에는 절에서 얻어오는 게 충분히 부끄러운 일이거나 미안한 일이 아니라 합리화를 하고 있는데요.

마침 처숙부가 절 간다고 해서 같이 가며, 상사공도 화자의 생각에 동의했어요.
사실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막 가져가겠다고 조용한 절에서 난리를 쳐요. 잘못된 게 맞죠

심지어 승려를 나무라기까지...

잘못됐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의리 : 지켜야 할 도리

이욕 : 세속적 욕구

사대부임에도 세속적인 욕구에 밀려 처숙부의 도움까지 받아 그 난장판 속에서 절의 겨름을 가져왔다고 하네요. 심지어 다행이라 생각하기까지...

잘못될 거라고 생각하고 권한 건 아니죠. 갔더니 문제였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냥 돌아왔으면 되는데 꾸역꾸역 뜯어왔죠.

상사공은 이 모든 걸 다 앞에도 유교적 가치를 뒤로 하고 세속적으로 신경 쓸 수 밖에 없는 화자를 도왔다고 하네요.
부끄러워집니다.

22. [A]~[E]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제 : 사와 대부 중 고민하다 사를 택함

- ① [A]는 자연물을 대상화하여 그 자연물에 역동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② [B]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여 인간과 자연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 ③ [C]는 성현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화자가 지닌 궁급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D]는 점층적인 표현으로 앞으로 해야 할 일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있다.
- ⑤ [E]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글쓴이의 → 사와 대부 중 고민! 여기 답이네요. 상태를 부각하고 있다. 일일이 다 보는 게 아니라 주제 먼저...!

23.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앞에 다 정리했죠.

- ① ㉠은 화자의 인생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충효를 중요하게 충효는 사든 대부든 지켜야 할 道(도)! 여겨 온 화자의 생각을 강조한다.
- ② ㉡은 화자가 돌이켜 보는 삶의 기간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뭐가 더 좋을까 고민했죠. 충효를 실현하려고 애쓴 세월을 나타낸다.
- ③ ㉢은 유구한 세월이라는 의미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성현의 도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음을 강조한다. 보편적으로 지켜야 할 도리죠.
- ④ ㉣은 흘러간 시간이 길다는 의미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강조한다. 이런 내용이 갑자기...? 주제랑 상관 X
- ⑤ ㉣은 과거의 한때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현재 자연에서 여유를 느끼는 상황과 대비되는 시절을 나타낸다. 답이네요. 고민하던 때, 고민이 해소된 때 비교

24.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형적인 고전 시가 유형의 문제로
처와 출, 사와 대부를 구분해야 하는 문제
주의할 점은 사든, 대부든 결국 목적은
道(도)라는 것이예요!

<보 기>

권호문의 「한거십팔곡」은 지향하는 삶을 실천하는 태도의 변화 과정을 형상화한 연시조로, <제1수>부터 <제19수>까지의 내용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 ① <제3수>의 '임천이 좋으니라'에는 <제1수>의 '마음에 하고자 하여'에 담긴 태도와는 다른 태도가 나타난다. 임천 - 사
마음에 하고자 하여 - 대부 ∴ 다름 (O)
- ② <제3수>의 '너를 좇으려' 했던 태도는 <제8수>에서 '출'하는 모습으로 실현되어 나타난다. 너를 좇으려 - 사 / 출 - 대부 ∴ 다름
- ③ <제8수>의 '이것을 즐기나니'에는 <제1수>의 '이 두 일'을 즐기나니 - 사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드러난다. 이 두 일 - 도 ∴ 다르지 않음
- ④ <제13수>의 '달 아래 누운' 모습에는 <제3수>에서 '절로 한가하였'던 삶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달 아래 누운 - 사
한가하였던 - 사 ∴ 다르지 않음
- ⑤ <제17수>에서 '아무 텐들' 상관없다고 하는 화자의 생각은 아무 텐들 - 도 (사든 대부든 결국 하나)
<제19수>에서 '일념'으로 바뀌어 나타난다. 일념 - 고민 (사, 대부가 다르다고 생각)
∴ 다름

25. [의리]와 [이욕]을 중심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의리 : 道(도)

않은 것은?

이욕 : 세속적 욕심

- ① 글쓴이는 겨름을 얻은 것을 다행스럽게 여겼던 것은 자신이 '이욕'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 ② 글쓴이는 아내가 자신에게 취서사에 가길 권한 것은 글쓴이가 '이욕'에 빠지게 될 줄 몰랐기 때문이라고 본다.
- ③ 글쓴이는 겨름을 얻도록 상사공이 자신을 도와준 것은 글쓴이가 '의리'를 해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 ④ 글쓴이는 취서사에 가는 것을 유택이 반대한 것은 글쓴이를 이기 '의리'를 해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본다.
- ⑤ 글쓴이는 겨름을 구하러 가는 것에 유평이 동의한 것은 그 일이 '이욕'에 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해칠 걸 걱정해서 도와준 거면 도와준 결과로 의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함. 오히려, 이미 의리를 해쳤으니 이욕이라도 충족하도록 겨름을 주려고 한 배려였음

후반에 나온 상사공의 의도가 중요했다.

결국 이 문제는 도가 무엇인지를 더욱 생각해보라는 의도입니다. 과연 도 그러니까 의리가 훼손된 정확한 시점은 언제일까요? 처음 겨름을 얻으려고 길을 떠났을 때? 난장판인 상황을 보고만 있었을 때? 꾸역꾸역 겨름을 얻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때? 상사공이 겨름을 구해준 때? 집에 겨름을 들고 돌아오며 다행스럽다고 생각한 때? 정답은 바로, 난장판임을 보고도 겨름을 가져가려고 마음 먹은 그 순간입니다. 유학이라는 학문은 결국 마음을 올바르게 먹는 방법에 대한 학문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마음을 먹은 그 순간이 고쳐야 하는 이욕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사공은 이미 글러먹은(?) 화자에게 그래 겨름이라도 가져라... 라는 생각으로 겨름을 주었을 거예요. 오죽 가난하고 급하면 저렇까 생각했겠죠.

26.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에는 작가가 유학자로서의 신념을 바탕으로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나타난다. (가)에는 출사와 은거 사이에서의 고민과 그 해소 과정이, (나)에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곤란을 겪은 상황에 대한 성찰이 나타난다. 한편 (나)는 세속적 가치를 떨치지 못해 과오를 저질렀던 상황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가)와 차이를 보인다.

- ① (가)의 '부귀 위기라 가난하게 살리로다'에서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추구하려는 작가의 태도를 엿볼 수 있군. 사
- ② (나)의 '궁해도 의를 잃지 않는다.'에서 작가가 추구하는 유학자로서의 신념을 엿볼 수 있군. 도
- ③ (가)의 '세상에 티끌 마음이 일호말도 없다'에서 세속적 가치에 구애되지 않은 모습을, (나)의 '버리고 돌아오지 못하였다'에서 세속적 가치를 떨치지 못한 모습을 엿볼 수 있군. (가)는 사, (나)는 not 道(도)
- ④ (가)의 '도무지 할 일 없어'에서 출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나)의 '시끌벅적하게 뒤섞여 밟아 대'는 모습에서 경제적 문제로 곤란을 겪은 상황을 확인할 수 있군. (가)는 사인데, 대부분 못 해서 고민이라고 말하고 있다. 할 일 없이 평화로운 게 사고, 사든 대부분 도를 추구하면 상관없는데, 이를 잘못된 걸로 서술...
- ⑤ (가)의 '도가 어찌 다르리'에서 출사와 은거 사이에서의 고민이 해소되었음을, (나)의 '의를 잃'은 것에 대해 '이후에는 마땅히 조심'하겠다는 다짐에서 성찰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군. (가)는 도, (나)는 not 도였음을 반성

<보기>

「무성격자」의 정일은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을 경멸하고 현실에서의 적극적인 행동을 주저하는 한편, 자신과 주변에 관심을 집중한다. 그는 주변 대상을 관찰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고, 파악한 내용에 반응하며, 그런 자신을 분석하기도 한다. 나아가 관찰과 분석을 수행하는 자신의 내면마저 대상화함으로써 인간 심리의 중층적 구조를 드러낸다.

속물적 욕망을 경멸
 적극적인 행동은 주저 → 소극적
 주변과 자신을 성찰
 주변을 통해 자신을 성찰
 자신의 내면도 제3자가 보듯이 성찰

성찰은 현대 소설에서 거의 필수적입니다. 애초에 현대소설이라는 갈래가 인물의 내면을 초점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성찰을 하지 않고는 작품이 굴러갈 수 없습니다. <보기>에서 성찰의 방식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찾아야 할 겁니다. 또한 성찰 대상이 될 화자의 모습마저 제시해주었죠. 정일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속물적 욕망을 성찰하고 싶을 겁니다.

[**앞부분 줄거리**]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귀향한 정일은 용팔이에게 재산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아버지가 아직도 지키고 있는 그의 재산을 넘겨다보는 듯한 용팔이가 따지는 산판알이 거침없이 한 자리씩 올라가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의식하며 보고 있을 때, 이렇게 대강만 놓아도, 하고 산판을 밀어 놓으며 쳐다보는 용팔이의 눈과 마주치게 되자 정일이는 흠칫 놀라게 되는 자신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깨달았다. ㉠ 여기 대한 상속세만 해도 큰돈인데 안 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제 말씀대로 하지지요.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하는 용팔이는 정일이의 앞에 위임장을 내놓으며 도장을 치라고 하였다.

앞부분 줄거리는 평가원이 직접 쓴 것이므로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위독한데, 재산 상속부터 따지다니. 속물적 욕망!
 용팔이와 용팔이를 보고 있는 자신으로부터 무언가 잘못된 속물적 욕망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음을 성찰
 ㉠: 상속세를 안 낼 방법을 알려주는 용팔이 → 속물적 욕망의 극치
 아버지가 위독한데 재산 얘기만 나와요.

여기까지는 내면이 그리 나오지는 않고, 정일의 내면을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주관적인 표현, 감정적인 표현이 나오면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바로 다음 문단부터 나오네요.

<보기> 덕에 1문단만 보아도 정일이 곧 성찰을 시작할 거라는 것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A] 정일이는 더욱 불쾌하여졌다. 잠이 부족한 신경 탓도 있겠지만 자기의 눈을 기탄없이 바라보는 용팔이의 얼굴에 발라놓은 듯한 그 웃음이 말할 수 없이 미웠다. 이 소인 놈! 하는 의분 같은 ㉠ 심열이 떠오르며, 언제 내가 이런 음모를 하자고 너와 공모를 하였던가? 하고 그의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을 느끼었다. 그러나 정일이는 금시에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이 자기 얼굴에 흐름을 깨달았다. 이러한 심열은 신경 쇠약의 탓이 아닐까? 의분이랄 것도 없고 결백성도 아니고 그런 것을 공연히 이같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자기 마음 한 모퉁이에 상식을 놓쳐 뿌린 결과가 어떤가? 해 보자 하는 농치기 쉬운 어떤 힌트같이 번쩍이는 생각을 보자 정일이는 조금씩 도장을 뒤희내며, 자 칠 대로 치우, 나는 어디다 치는 것도 모르니까 하였다. 이렇게 지껄이듯이 말하는 정일이는 자기가 실없이 웃기까지 하는 것을 들을 때 내가 지금 더 심한 심열에 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갑자기 말과 웃음과 표정까지 없어지고 말았다.

용팔이를 미워함으로써 자신은 속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어함

그러면서도 재산이 눈에 들어오는 이중적인 모습 (자기도 속물이니까)

기출에 나오는 용어로 정리하자면, 정일이라도 용팔이도 모두 소시민이다. 심지어 치는 것도 용팔이를 시킴

자신의 이중적 모습을 알아챈 정일 (알아챘다는 것은 개선 가능성 있다는 것)

현대 소설 빈출 개념으로 '서민과 소시민의 비교'가 있습니다.

서민 : 연대하여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잠재적으로 가진 사람들

소시민 : 개인의 이익에 급급하며, 타인을 연대할 대상이 아닌, 자신의 경쟁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

서민은 현대시나 현대 소설에서의 예찬 대상, 소시민은 비판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캐릭터가 작품에서 나오면 해당 인물들의 서민적 면모, 소시민적 면모에서 답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현대 소설에서는 소시민이 더 자주 그려지는데, 이들의 기가 찬 모습 중 베스트는 '나는 저들과 달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소시민들을 서로를 저급하게 생각하면서도 자신도 그 중 일부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선이 안 되고 평생 소시민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정일'은 [A]에서 자신의 이중성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앞으로 소설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렵게 해준 [특이점]인 셈이죠!! 아주 잘 살펴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 도장을 치고 난 용팔이는 공손히 정일이에게 둘러며, 잔금은 제가 장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일어선다. 중문으로 들어가는 용팔이의 뒷모양을 바라보던 정일이는 갑자기 불러내고 싶었다. 궁둥이를 들먹하고 부르는 손짓까지 하였으나 탄력 없이 벌어진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창졸간에 용팔이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서 주저되는 것같이도 생각되었다. 중문 안으로 들어가는 용팔이의 뒷모양은 마치 심한 장난을 꾸미다가 용기를 못 내는 자기를 남겨 두고 ㉣ 그걸 못 해? 내 하마 하고 나서는 동무의 모양같이 아슬아슬한 것이었다. 종시 용팔이가 중문 안으로 사라져서 불러낼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후회하면서도 내가 정말 후회하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따라가서 볼 수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정일이는

결국 정일이는 속물이라고 생각하는 용팔이의 말 대로 도장을 찍음 문제라는 건 알지만, 실천할 정도로 용기가 있지는 못함

자신의 의지 부족을 용팔이의 도움으로 포장하여 합리화하는 정일

본인의 합리화를 알아채는 중

역시나 <보기>에서 나온 대로 타인인 용팔이를 관찰하며 오히려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가고 있는 정일입니다. 이렇게 기출 분석을 하든, 시험에서 지문을 읽든 간에 <보기>에 나온 단어를 그대로 지문에서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보기>의 언어로 지문을 해석하라는 얘기이며, 이런 능력은 선지 판단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따라가서 붙들 수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정일이는 용팔이가 이 말을 시작하였을 때부터 자기는 육감으로 벌써 예기하였던지도 모를 일이 지금 일어나리라는 기대가 앞서는 것을 느끼며 정일이는 실험의 결과를 기다리는 듯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예사로운 말소리는 들리지 않는 거리이므로 긴장한 정일이의 귀에도 한참 동안은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다. 아버지도 종시 죽음에 굴복하고 마는가? 이렇게 생각되어 정일이는 긴장하였더니만큼 허전한 실망에 담배를 붙이려고 성냥을 그었을 때 자기의 귀를 때리는 듯한 아버지의 격분한 고함 소리를 들었다.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재산을 처리하려고 정일이가 도장까지 찍었죠 앞서 나온 것처럼 위임장으로 세금을 안 물려고 그런 거예요.

용팔이가 이제 아버지랑 대화할 것이라는 생각에 긴장하는 정일

역시나 고함치는 아버지

문학적으로 아버지의 고함 소리에 대해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일이가 타인의 행위로부터 자신을 성찰한다고 했는데 이 타인을 용팔이 말고도 아버지로도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고함은 용팔이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까요? 아버지는 자신이 죽지 않았음에도 재산부터 처리하려고 도장 찍은 위임장을 용팔이에게 들려보낸 정일이가 패심했을 겁니다. 이러한 점을 정일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고함 소리로 인해 정일은 굉장히 부끄러웠을 것이며 자신의 속물적 욕망이 아버지에게까지 미쳤음을 깨닫게 됐을 겁니다. 이 정도 사건이면 한 인물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Big event죠. 인물의 성격은 그 인물의 삶이 응축된 아주 견고한 가치관입니다. 따라서 선지에서 성격이 변화된다고 하면, 반드시 성격이 변화할 만한 Big event가 지문에서 제시되어야 합니다. 일단 Big event는 나왔는데 이게 성격 변화로까지 이어질 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네요.

사실 이렇게 되어서까지도 죽기가 싫은가 하고 아버지를 눈 찌푸리고 바라보는 자기는 죽음의 공포를 해탈한 무슨 수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애써 살려는 의지력이 없는 것뿐이다. 아버지는 한 번도 자기의 생활을 회의하거나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므로 이같이 죽음과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였다. 그래서 정일이는 어떤 위대한 의지력을 우러러보는 듯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때가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에 슬퍼하지는 못할망정 삶을 가치있게 못 사는 자신의 소시민적 가치관을 대입해 생명의 가치를 훼손 자신과 다른 아버지

아버지의 모습으로부터 자신의 잘못된 내면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정일

그때 심한 구토를 한 후부터 한 방울 물도 먹지 못하고 헛바닥을 축이는 것만으로도 심한 구역을 하게 된 만수 노인은 물을 보기라도 하겠다고 하였다. 정일이는 요를 독여서 병상을 돌우고 아버지가 바라보기 편한 곳에 큰 물그릇을 놓아 드렸다. 그러나 그 물그릇을 바라보기에 피곤한 병인은 어디나 눈 가는 곳에는 물이 보이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큰 어항을 병실에 가득 늘어놓고 물을 채워 놓았다. 병인은 이 어항에서 저 어항으로 서늘한 감각을 시선으로 훑듯이 돌려 보다가 그도 만족하지 못하여 시원히 **[B]** 흐르는 물이 보고 싶다고 하였다. 정일이는 아버지가 보기

어떻게든 삶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만수 노인

아버지 = 만수 노인

물을 마시지는 못하지만, 보기라도 하며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확인하려 함

어항이 여러 개가 되었음에도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기는 어려움

∴ 서늘한 감각 =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

[B] 흐르는 물이 보고 싶다고 하였다. 정일이는 아버지가 보기 편한 곳에 큰 물그릇을 놓고 대접으로 물을 떠서는 작은 폭포같이 들이 쏟고 또 떠서는 들이 쏟기를 계속하였다. 만수 노인은 꺼명게 탄 혀를 벌린 입 밖에 내놓고 황홀한 눈으로 드리우는 물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을 볼 때 정일이는 견잡을 사이도 없이 자기 눈에 눈물이 솟아 오름을 참을 수가 없었다. 정일이는 일찍이 그러한 눈을 본 기억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더욱이 아버지의 얼굴에서! 자기 아버지에게서 저러한 동경에 사무친 황홀한 눈을 보게 되는 것은 의외라고 할밖에 없었다.

움직이는 물을 보며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아버지

아버지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재산으로만 아버지를 바라봤던 자신의 모습과 달리 아버지의 살아있음 자체를 확인하고 있는 정일

결국 앞에는 용팔이로부터, 뒤에는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알게 되고 있네요.

밑줄이 많으므로 정리하고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정리하는 걸 저는 선호하긴 합니다.

- ㉠ : 여기 대한 상속세만 해도 큰돈인데 안 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제 말씀대로 하지요
- ㉡ : 도장을 치고 난 용팔이는 공손히 정일에게 돌리며, 잔금은 제가 장인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 : 그걸 못 해? 내 하마 하고 나서는 동무의 모양같이 아슬아슬한 것이었다.
- ㉣ : 정일이는 실험 결과를 기다리는 듯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 ㉤ : 아버지는 한 번도 자기의 생활을 회의하거나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었으므로 다섯 개 전부 정일의 소시민적 면모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크게 묶고 가면 됩니다. 원래 밑줄은 주제에서 나와요~!

- ㉠ : 심열 → 자신을 용팔이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정일
- ㉡ : 서늘한 감각 →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한 아버지

[A] : 용팔이로부터 자신의 소시민적 면모를 깨달은 정일
 [B] :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소시민적 면모를 깨달은 정일

27.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회상 장면을 병치하여 사건의 흐름을 반전시킨다.
- ② 사물의 세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장면의 현장성을 강화한다.
- ③ 중심인물의 반복적인 동작을 강조하여 내적 갈등을 표면화한다.
- ④ 서술자가 풍자적 어조를 활용하여 중심인물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낸다.
- ⑤ 서술자가 중심인물의 시선에 의존하여 사건의 양상을 제한 → 요 친구가 위의 설명에 부합하네요. 적으로 나타낸다.

현대 소설이니 내면 묘사가 중요합니다. <보기>에 나온 것처럼 정일의 관찰과 묘사가 주를 이뤘던 작품입니다.

2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는 정일이 주목하는 용팔이의 이해타산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나는 용팔이와 달라
- ② ㉡는 용팔이 정일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위치임을 드러낸다. 나는 용팔이와 달라
- ③ ㉢는 용팔이의 행위에 대한 정일의 실망스러운 마음을 드러낸다. 나는 용팔이랑 사실 같아보다...
- ④ ㉣는 아버지와 용팔이 간 대화의 결과를 정일이 주시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동질감이므로 실망 아닙니다. (X)
- ⑤ ㉤는 아버지가 보여 주는 삶의 태도에 대한 정일의 평가를 드러낸다. 나는 용팔이랑 같아 나는 아버지와 달라

29. [A], [B]를 고려하여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용팔이와 자기가 다를 거라고 생각한 것은? 는 소시민적 면모를 보이는 정일

- ① ㉠은 용팔이의 '웃음'에 대한 정일의 불쾌감으로 인해, ㉡은 ㄴ은 죽음을 느끼고 있는 아버지가 아버지가 내비치는 '황홀한 눈'으로 인해 발생한다.
- ② ㉠은 정일이 갈등 끝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은 아버지가 사무치는 '동경'을 포기함으로써 지속된다.
- ③ ㉠은 정일의 '신경 쇠약을 일으키는 원인이고, ㉡은 아버지가 '꺼떡게 탄 혀'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 ④ ㉠은 용팔이에 대한 미움이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으로 격화되는 정일의 마음을, ㉡은 '물그릇'에서 '어항', '드리우는 물줄기'로 심화되는 아버지의 갈망을 함축한다. 그대로 나왔네요. (O)
- ⑤ ㉠은 용팔이의 '공모' 요구로 인해 표면화된 정일의 물질 지향적인 태도를, ㉡은 '심한 구역' 이후로 아버지가 '물'에서 얻고자 하는 육체적 안정에 대한 추구를 드러낸다.

- 1번 - 순서만 따져봐도 ㄴ 뒤에 '황홀한 눈'이 나오네요.
- 2번 - 도장 용팔이가 찍었어요. 치사함의 극치입니다 정일이가 대신 찍어줄 때까지 앞에서 시간 끌었거든요. 아버지는 정일과 달라요. 동경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 3번 - 신경 쇠약의 탓이 아닐까? → 신경 쇠약이 심열의 원인이 아닐까, 인과가 뒤집혔어요. 육체적 고통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없어요. 다만 정신적으로 삶을 포기하지 않는 방법이 흐르는 물이었죠.
- 5번 - 용팔이와 다른 척하는 게 기이므로, 뒤의 ㄴ에 대한 설명은 육체가 아니라 정신이므로 틀렸네요.

30.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무성격자」의 정일은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을 경멸하고 현실에서의 적극적인 행동을 주저하는 한편, 자신과 주변에 관심을 집중한다. 그는 주변 대상을 관찰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고, 파악한 내용에 반응하며, 그런 자신을 분석하기도 한다. 나아가 관찰과 분석을 수행하는 자신의 내면마저 대상화함으로써 인간 심리의 중층적 구조를 드러낸다.

이 문제로 소시민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형적인 소시민에 관한 지문 Set였어요.

- ① 산판알을 놓으며 이익을 따지는 상대를 경멸하면서도 산판알이 올라가는 것을 주목하는 데에서,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찾을 수 있군. 소시민인 정일
- ② 상대의 웃음에서 공모 의사를 읽어 내자 얼굴에 흐르는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을 깨닫는 데에서, 상대에 대한 불쾌감을 웃음으로 무마하려는 자신을 의식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군. 해당 장면은 자신이 용팔이와 다르지 않은 소시민임을 깨닫는 장면이므로 틀림 - 소시민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얘기했죠?
- ③ 중문 안으로 들어가는 상대를 불러내지는 못하고 자신이 그를 부르지 못한 이유를 생각하는 데에서, 행동을 주저하고 자신에게로 관심을 돌리는 모습을 찾을 수 있군. 소시민인 정일
- ④ 상대의 고통을 바라보며 의지력을 우러러보는 듯한 마음이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데에서, 상대와의 차이를 인식하는 스스로의 내면마저 대상화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군. 정일과는 다른 아버지
- ⑤ 물줄기를 바라보는 상대로부터 이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눈을 확인하는 데에서, 주변 대상을 관찰하여 상대가 내비치는 생에 대한 강렬한 동경을 파악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군. 정일과는 다른 아버지

[31-34] 현대시 - 「맹세」, 「봄」

(가)에 해당하는 <보기>

33. 선생님 : (가)는 부재하는 입을 기다리며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며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화자의 시선이 두드러집니다.

→ 이미 누군지, 바람이 어디에 드러났는지, 어떤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며, 어떤 시선인지를 찾아야겠군.

<보기>를 보고 이렇게 작전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문학이 20분 안으로 들어와요.

만년(萬年)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리야

가슴이 뜨겁대요

어둠에 창백한 꽃송이마다
깨물어 피터진 입을 맞추어

창백한 애들마다 일일이 입을 맞춰서

마지막 한방울 피마저 불어 넣고
해돋는 아침에 죽어가리야

피를 다 넣어준다니, 엄청나게 희생적인 모습이네요.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모든 것 다 잃고라도
흰뼀이 되는 먼 훗날까지
그 뼀이 부활하여 다시 죽을 날까지

사랑하는 것을 다 잃고서라도
죽고 또 죽더라도

거룩한 일월(日月)의 눈부신 모습
입의 손길 앞에 나는 울어라.

이미 나왔습니다. 거룩하고 빛나는 모습. 마치 절대자 같기도 해요. 일단 지켜봅시다. 감정적, 주관적 표현이 나오면 밑줄을 쳐야 해요. 울어라 → 왜 울었는지 찾읍시다.

마음 가난하거나 입을 위해서
내 무슨 자랑과 선물을 지니라

엄청난 희생 정신을 가진 화자도 입 앞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축에 속한답니다. 입은 완벽한 존재인가 봐요.

의로운 사람들이 피흘린 곳에
숫아 오른 대나무로 만든 피리뿐

정의로운 사람들의 희생에도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까.

흐느끼는 이 피리의 아픈 가락이
구천(九天)에 사모침을 임은 듣는가.

정의로운 사람들의 희생을 기리고, 유지를 이어 입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했으면 세상을 바꿔달라고.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모든 것 다 잊고라도
붉은 마음이 숫이 되는 날까지
그 숫이 되살아 다시 재 될 때까지

원망과 증오를 모두 내려놓아서라도
계속해서 마음을 되새기며

못 잊힐 모습을 어이 하리야
거룩한 이름 부르며 나는 울어라.

세상이 바뀌기를
절실하게 입 앞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울음의 이유는 세상을 바꾸려는 헌신적인 노력이었네요.

정의로운 일을 하다 죽은 사람들의 무덤 앞에서 구슬피 울며 신에게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달라는 바람을 전하는 한 편의 장면이 떠오르네요. 이렇게 현대시에서는 해당 작품을 짧게는 사진 한 장, 길게는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머릿속에 재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웹소설을 드라마화하려는 PD의 마음으로 말이죠.

(나)에 대한 <보기>

33번 선생님 : 봄과 같은 세계에서, 대상과 함께 자유를 누리려는 바람을 드러냅니다.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들의 모습이 두드러지며, 주변 존재들을 대하는 태도와 바람을 실현하는 방식이 (가)와 차이가 있겠네요.

→ 어떤 대상과 자유를 누리려 하는지, 태도, 자유를 실현하는 방식이 어떻게 나와있는지 찾아야겠네요.

34번

<보 기>

(나)는 언어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시인의 탐구를 보여 준다.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대상을 파악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다시 언어에 구속된다는 필연적 한계를 갖는다. 그래서 시인은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한다. 이를 통해 언어와 대상이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언어의 한계와 가능성

언어로부터의 자유

결국 (나)가 추구하는 자유는 언어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거였네요. 확인해 봅시다.

언어가 어떻게 대상을 구속하고, 시인은 어떻게 이런 언어의 사용 방식으로부터 탈출할지를 찾으려고 노력하면 될 것 같네요. 들어가 봅시다.

저기 저 담벽, 저기 저 라일락, 저기 저 별, 그리고 저기 저 우리 집 개의 똥 하나, 그대 모두 이리 와 ㉠ 내 언어 속에 서라. 담벽은 내 언어의 담벽이 되고, 라일락은 내 언어의 꽃이 되고, 별은 반짝이고, 개똥은 내 언어의 뜰에서 굴러라. ㉡ 내가 내 언어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너희들도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굴러라. 그대 봄이다.

대상은 언어로 부르면서 언어로 구속하고 있습니다.

담벽이라는 대상도 '담벽'이라고 불리면서 언어에 구속되어버렸고, 그 외의 라일락, 별, 개똥 모두 그렇네요. 그러나 갑자기 시인은 봄을 외치며 자유를 부여합니다.

봄 = 자유? 언어로부터 탈출하려고 슬슬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봄은 자유다. 자 봐라, 꽃피고 싶은 놈 꽃피고, 잎 달고 싶은 놈 잎 달고, 반짝이고 싶은 놈은 반짝이고, 아지랑이고 싶은 놈은 아지랑이가 되었다. ㉢ 봄이 자유가 아니라면 꽃피는 지옥이라고 하자. 그대 봄은 지옥이다. ㉣ 이름이 지옥이라고 해서 필 꽃이 안 피고, 반짝일 게 안 반짝이던가. 내 말이 옳으면 자, ㉤ 자유다 마음대로 뛰어라.

대상의 이름을 불러서 구속하지 않고, 대상은 대상이 원하는 대로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꽃피고 싶으면 꽃피듯이요.

아무리 시인이 봄을 지옥이라고 불러도, 꽃피고 싶은 놈은 꽃피고, 반짝일 놈은

반짝이니 대상이 언어로부터 구속력을 탈피하고, 자유를 찾았네요. 찾고 싶은 걸 다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리력이 뛰어난 사람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봄은 자유다'라고 말한 것도 시인이 봄에게 자유를 강제한 것 아닌가요? 자유를 강제하니 대상이 자유로워지는데 왜 지옥을 강제하면, 여전히 자유인가요. 너무 시인이 자의적으로 말한 것 아닌가요?

A. 시인은 귀납법을 쓰고 있습니다. 봄=자유를 증명하려고 봄이 자유가 아니라고 가정했습니다. 가장 극단적으로 지옥이라고 가정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자유로워요. 따라서 봄은 자유입니다. 화자가 대상을 불러서 봄이 자유가 된 게 아니라, 원래 자유라는 걸 증명한 셈이죠.

시험장에서는 이 정도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면 좋지만, <보기>에 다 나와 있으니 딱 그 정도만 해요.

문제 풀어 봅시다.

3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표현 상의 특징을 묻고 있으나
이 역시 주제로 풀면 됩니다.

- ① (가)는 1연과 6연에서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상황 인식을 보여 준다.
- ② (가)는 4연과 9연에서 상황을 가정하는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한다.
- ③ (나)는 반복적인 표현을 제시하면서 쉼표를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한다.
- ④ (가)는 대비되는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양면성을 드러내고, (나)는 반복되는 행위를 제시하여 대상의 효용성을 드러낸다.
- ⑤ (가)는 같은 시구를 5연, 10연의 마지막에서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나)는 1연 끝 문장의 시어를 2연 첫 문장으로 연결하며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가)의 주제는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을 입 앞에서 맹세'한 것이고,
(나)의 주제는 '언어로부터 자유로운 세계인 봄'입니다.
절대적이고 온전한 임이 양면성이 있을 리
가요. 또한, 효용성을 (나)의 화자가 판단
할 리가 없습니다. 언어로도 안 부르고 있
는 그대로 대상을 존중하는데 효용성?

따라서 주제와 어긋나는 4번이 눈에 우선 튀어야 합니다. 주제로 안 풀리면 표현상의 특징을 보세요. 안 풀리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시험장에서 못 알아차린다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32. **아픈 가락**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픈 가락 : 정의로운 사람들의 희생

- ① 임에게 자랑스레 내보일 화자의 자부심을 포함한다.
- ② 의로운 사람들이 보여 준 희생과 설움을 담고 있다.
- ③ 대나무에 서린 임의 뜻을 잊으려는 화자를 질책한다.
- ④ 피리의 흐느낌에 호응하여 화자의 억울함을 해소한다.
- ⑤ 구천에 사무친 원망을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 바로 보이네요. 시적 상황을 우리가
장면으로 상상했다면 틀릴 수 없는
문항입니다.

33. 다음에 따라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임과 세상에 대한 바람

선생님: (가)는 부재하는 임을 기다리며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고, (나)는 봄과 같은 세계에서, 대상들과 함께 자유를 누리려는 바람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가)는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화자의 시선이 두드러짐에 비해, (나)는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들의 모습이 두드러진다는 차이를 보여요. 이 차이가 주변 존재들을 대하는 태도나 바람을 실현하는 방식에 반영되기도 해요.

자유로운 세계

존재를 대하는 태도 / 바람 실현 방식
(가): 희생적, 헌신적 / 입 앞에서 사무침
(나): 자유를 존중 / 언어로부터 풀어줌

- ① (가)의 화자가 바라는 세상은 '해돋는 아침'과 같이 '어둠'을 벗어나 밝음을 회복한 세상일 거야.
- ② (나)의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에서 대상들은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구를 거야.
- ③ (가)의 화자는 '꽃송이'를 '창백한' 대상으로 바라보고, (나)의 화자는 대상들 각각의 모습에 주목하여 그 개별성을 드러내고 있어.

(가)의 화자의 이상

(나)의 화자의 이상

꽃송이를 자신의 헌신이 필요한 대상으로,
반면 (나)는 각자의 자유를 존중

④ (가)의 화자는 '피마저 붙어 넣'는 희생적 태도를 보이고,
(나)의 화자는 대상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게 하여 '자유'를
함께 누리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3번 선지와 마찬가지로

⑤ (가)의 화자는 '붉은 마음'을 바쳐 부재하는 '임'을 기다리고,
(나)의 화자는 '담벽' 안에서 '봄'과 같은 세계를 대상들과 공유
하려 하고 있어.

붉은 마음 : 정의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헌신
→ 마음을 다해 기다리므로 옳을 수 있음

'담벽'은 그저 언어에 구속되는 대상의 한 예 중 하나였는데?

'담벽이 내 언어의 담벽'이 된다는 걸 보고, 언어의 자유를 구속하는 존재로 보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라일락이 내 언어의 꽃'이라는 걸 보고 언어를 아름답게 해주는 존재라는 식으로 역시나 의
미를 가져야 합니다. 대구법이므로 둘은 완벽하게 동일한 위상이거든요. 그렇지만, 라일락은 그냥 하나의 대
상으로써 예로 쓰인 것이라는 건 쉽게 보일 겁니다. 담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저 이름을 불러버리는 순간 내 언어에 대상들이 갇혀 버린다는 예시로 쓰였어요.

강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 강아지는 자신만의 존재를 잃고, 수많은 강아지 중 하나로 치부됩니다.

이러한 개체성의 상실을 언어로부터 찾아낸 게 이 작품이었어요.

이런 거창한 의미를 몰랐다고 해도, '담벽'이 하나의 예로 쓰이고 있지,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특별한
시어가 아니라는 것으로부터 해당 선지가 틀렸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겁니다. ∴ ㉔ (X)

34. <보기>를 참고하여 ㉑~㉔의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역시나 주제로 풀 겁니다.
적절한 것은?

<보 기>

(나)는 언어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시인의 탐구를 보여
준다.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대상을 파악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다시 언어에 구속된다는 필연적 한계를 갖는다. 그래서
시인은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한다.
이를 통해 언어와 대상이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언어의 한계와 가능성

언어로부터의 자유

결국 (나)가 추구하는 자유는 언어로
부터의 자유

- ① ㉑은 자신의 언어 속에서도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이 유지된 ㄱ: 내 언어 속에 서라. (X)
다는 생각을 의미한다. 화자의 언어 속에 선 대상들이 자유를 얻어 관습에서 벗어남이 <보기>에 있죠
- ② ㉒은 대상을 파악하는 행위까지 포기하면서 자유를 얻고자 ㄴ: 내가 내 언어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하는 의도를 나타낸다. 대상을 온전히 파악해주려고 자유를 얻는 것이므로 주제 역행하네요. (X)
- ③ ㉓은 새로운 표현을 시도하여 언어와 대상이 자유를 얻을 ㄷ: 봄을 꽃피는 지옥이라 하자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귀납법으로 자유로운 봄을 도출했었죠. 맞네요. (O)
- ④ ㉔은 대상들을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외부 상황에 ㄹ: 이름이 지옥이라고 꽃이 안 피나
변화를 주었음을 의미한다. 이름을 다르게 불러도 본질은 그대로죠. 다르게 불렀을 뿐. 변화 (X)
- ⑤ ㉕은 언어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하여 자신이 제한한 의미에 ㄹ: 자유다 마음대로 뛰어라.
따라 대상들이 움직임을 의미한다. 제한이라뇨. 자유로운데 말이죠. (X)

출제자라면 이 작품에서 당연히 3번 선지를 답으로 내고 싶었을 겁니다. 저 말 한마디로 언어로부터 구속을
탈피하고 대상에 자유를 붙여넣었으니 이 시의 가장 중요한 Key point라는 거죠. 이런 걸 알아봐야 합니다.

총평

기출 유형의 전형적인 반복 - 평소와 달리 어렵게 느꼈다면, 높은 확률로 최근 기출에 대해서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감으로 풀었을 것. 만약 정말 분석을 했음에도 그리 느꼈다면, 06-15의 예전 기출들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 → 문항은 이때가 17-21보다 난도가 높아 오히려 요즘 기조와 맞음

각 갈래별로 조금의 tip들을 실었습니다. 공부하시다 질문 생기면 댓글 달아주세요. :)